

7연승 한화 vs 10경기 8승 롯데 대격돌

[주간 야구전망대] 한화 무서운 상승세...롯데, 타선 공격력 매서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단.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주중 3연전에서 마주한다.

한화와 롯데는 22일부터 사흘간 부산 사직구장에서 3연전을 치른다. 한화는 KBO리그에서 가장 기세가 꺾여난 팀이다. 지난 13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20일 대전 NC 다이노스전까지 7경기를 내리 이기며 2위로 올라섰다. 22일 롯데를 상대로 연승 행진을 '8'로 늘리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한화는 지난 2~3일 대전에

서 롯데에 당한 2연패를 설욕하려 한다.

한화의 탄탄한 선발 투수진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7연승을 질주하는 동안 한화 선발 투수는 전부 승리를 따냈다. 7경기 연속 선발승은 구단 최다 타이 기록이다. 한화 1선발 코디 폰세와 부활한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가 각각 2승씩을 수확했다.

이번 롯데와 3연전에서는 선발 로테이션 순번상 라이언 와이즈, 류현진, 엄상백 순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 투수 모두 이번 시즌 롯데전 등판은 처음이다. 지난해 엄상백은

롯데전 5경기에서 30%이닝을 투구하며 2승 1패 평균자책점 4.15를 기록,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선발진뿐 아니라 타선도 패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5경기에서 총 40득점을 올렸다.

4번 타자 노시환은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 0.400 5홈런 10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연승 행진을 견인했다. 결승타도 두 번이나 때려냈다. 중심 타자 채은성은 타율 0.455로 맹타를 휘둘렀고,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안은 타율 0.400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한화에 맞서는 롯데도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태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챙기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다. 2위 한화와 불과 0.5경기 차다.

롯데는 시즌 초반 주춤했던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주 타율 0.481로 필립 난 황성빈이 공격 침범 역할을 해냈고, 전민재와 나승엽이 각각 타율 0.391, 0.381로 불발망미를 휘둘렀다. 특히 전민재는 득점권 타율 0.429를 기록하며 찬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선발 로테이션 순서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 3연전에서는 잘리 반즈, 박세웅, 터커 데이비슨이 차례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위에서 7위로 추락한 SSG 랜더스는 주중 3연전에서 KT 위즈와 맞붙는다. 지난 11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한 SSG는 KT를 상대로 분위기 쇄신을 노린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2승으로 우위에 있다.

KT는 최근 11경기에서 7승을 작성하는 등 꾸준히 승수를 쌓으며 3위에 자리하고 있다.

22일 두 팀의 선발 투수 매치업이 눈길을 끈다. SSG 토종 에이스 김광현과 친정팀에 비수를 꽂으려는 KT 오원석이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오원석은 지난 16일 광주 KIA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SSG를 상대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18승 5패로 선두를 독주하는 LG는 22~24일 잠실에서 NC와 3연전에 임한 뒤 25~27일 광주에서 KIA와 격돌한다.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KIA는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치른 후 LG를 만난다.

25~27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NC의 3연전은 창원 NC파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며 장소가 대구로 변경됐다. /뉴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남서 개최

25일 목포종합경기장서 개최식...2만여명 열전

대한체육회는 25~27일 전남 일원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개최식은 25일 오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27일 목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체육회는 안전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을 포함해 32개 주요 경기장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최초로 실시했고, 이후 모든 집결은 스포츠안전재단 전문가와 함께 진행 중이다.

대회 참가 종목 단체와 시도체육회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사전 배포하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모의 훈련과 안전 교육을 병행

했다. 또 체육회는 참가자 만족도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상 부문을 확대했다.

기존에 각 부문별로 1위 시도만 시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력상(경기 성적 우수 시도)과 성취상(직전 대비 경기 성적 향상 시도)에 대해 1~3위까지 시상한다.

아울러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참가 신청, 전자지갑 기반 ID카드 발급 등으로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모바일 QR 기반 신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선수단 확인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올해 대축전에는 대회 최초로 인공지능(AI) 중계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일반부 농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김 호 기자

‘가물치 더비’ 전남, 충남아산전 무승부

0-0으로 비겨...승점 15점·3위 유지

‘가물치 더비’로 관심을 모은 전남드래곤즈가 충남아산FC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은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시즌 8라운드 충남아산과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번 맞대결은 스승과 제자의 사제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전남 김현석 감독은 지난 시즌 충남아산에서 프로팀 감독으로 데뷔해, 팀을 리그 2위에 올려놓으며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반면 충남아산은 당시 김 감독을 보좌했던 배성재 수석코치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내부 승계를 택했다.

이날 전남은 5-3-2 포메이션으로 충남아산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전반 10분 전남이 먼저 알베르피가 올린 코너킥을 머리로 돌린 호난의 슈팅이 크로스바로 향하면서 충남아산을 위협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선 충남아산은 한교원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전반 21분 역습을 시도한 전남은

정지용이 넣어준 스루패스를 정강민이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충남아산 신승훈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실점을 막았다.

전반 33분 연이은 코너킥 상황을 맞이한 충남아산은 박종민이 중거리 슈팅으로 잠잠하던 흐름을 깼다. 전반 34분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을 짝 뺀 호난이 조주영의 뒤꿈치를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으나 이후 비디오 판독을 거쳐 옐로카드로 정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전반전을 마쳤다.

전남은 후반 시작부터 호난, 정강민을 빼고 하남, 발디비아 카드를 꺼냈다. 후반 17분 충남아산은 아담을 대신해 테니손을 넣었다.

후반 27분에는 충남아산이 한교원, 이학민 대신 김중민, 김주성을 넣으며 새 에너지를 투입했다. 후반 30분 전남은 정지용 대신 안재민을 투입했다.

후반 막바지로 갈수록 충남아산은 총공격을 펼쳤으나 전남의 적절 한 방어로 양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 1점을 더했다.

이로써 전남은 승점 15점(4승 3무 1패)으로 한단계 오른 3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성황리 폐막...순천시 종합우승

장성군서 첫 개최·대정정 마무리...내년 구례서 개최



200만 전남도민이 스포츠로 하나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에서 개최된 이

번 대회는 21일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뜨거웠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장성군 장군 아래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축구, 육상 등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각 종목별로 수준높은 기량과 스포츠맨십을 선보였다.

폐회식은 전남체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 종합 시상, 격려사 및 폐회사, 대회기 및 패너트기 이양, 차기 개최지 홍보, 환송사, 폐회선언, 성화 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순천시 선수단이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준우승은 여수시, 3위는 광양시가 각각 차지했고, 개최지인 장성군은 종합 4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은 사격 종목에서 600점 만점(종전기록 599점)을 기록한 김해운 선수(여수시)와 육상 종목 높이 뛰기에서 1m95(종전기록 1m89)를 기록한 어재혁 선수(무안군)가 공동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화순군 선수단,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